

2층 벽에 정교하게 위장...통나무판 치우자 3평 밀실

유병언 은신 순천 '숲속의 추억' 별장 압수수색 현장 가보니

복층 구조, 입구 겨우 찾아...바닥엔 스티로폼 검·경 발표 불신 속 최재경 인천지검장 사의

23일 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머물렀던 '숲속의 추억'이라는 통나무집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사망한 유씨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라는 해명에도 '뒷북' 대처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특히 경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번사체 주변에서 발견됐던 육포·스쿠알렌과 같은 회사의 '꿈같은 사랑'이 새겨진 가방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유씨가 아닌 것 같다"며 검·경의 발표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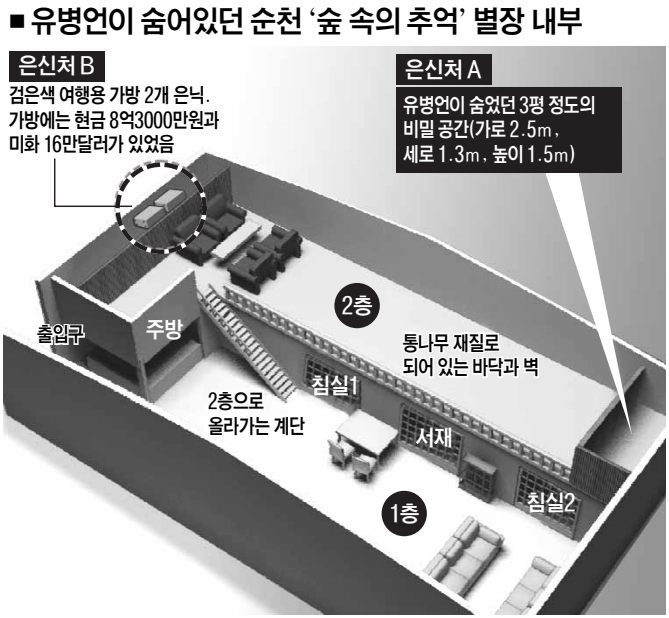
◇검찰이 결함기 수색한 별장 통나무집 가보니=순천경찰은 지난 23일 순천 시 서면 학구리 송치재휴게소 인근 '숲속의 추억' 별장을 압수수색한 뒤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밤 8시 30분경부터 별장을 비롯, 송치재휴게소 식당, 구원파 순천수련원인 야방수련원, 구원파 신도 소유 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음료수·과자·지적도 등 26종, 48점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별장에서 확보한 스쿠알렌, 육포, 가방 등도 함께 공개했다. 통나무집 별장은 '번사체=유씨'라는 생각이 들 법도 했다.

경찰은 특히 지난 5월 검찰이 별장을 급습했을 당시 유씨가 숨은 것으로 밝혀진 2층 통나무 벽 안에 있는 3평 정도의 공간을 함께 공개했다. 통나무집 별장은 방 3개와 화장실을 겸한 욕실과 2층으로 이뤄진 복층 구조였다. 언뜻 보면 별도의 공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어려웠다. 비밀 은신처는 수색을 마친 경찰이 외벽을 이루는 통나무판 곳곳을 두드린 뒤에야 입구를 다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장돼 있었다.

검찰 수색 당시에 유병언이 머물렀던 비밀 은신처인데다, 현금 8억 3000만 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각각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2개가 발견됐었던 장소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맞은 편 비슷한 형태의 비밀 공간을 추가로 보여주며 "바닥엔 스티로폼



유병언 은신 별장 밀실 23일 오후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별장을 경찰이 긴급압수수색한 가운데 유병언이 검찰 수색당시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별장 2층 통나무 판자로 위장된 비밀 공간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아남은 죄스러움 괴롭고 목욕탕도 못가” 진술에 숙연

광주지법 3일간 세월호 재판 일반인 생존자 10명의 증언

지난 3일간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는 100일 전 발생한 세월호 침몰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 자리였다.

세월호 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 3일간 법정을 찾은 희생자 가족 등 방청객들은 탑승객들의 육성을 통해 당시의 아찔했던 사고 순간과 생사를 넘나든 긴박한 구조 상황이 고스란히 오버랩되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몸서리를 쳤다.

법정은 위급을 무릅쓰고 승객 구조에

힘썼으면서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미안해하는가 하면, 참사 이후 갑갑한 곳, 사우나·바다를 가지 못한다며 괴로워하는 생존자들과 자신들 살겠다고 승객들을 나 몰라라한 선원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극명하게 대조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은 침몰 참사 당시 탑승했던 일반인 승객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통해 전해들은 자리였다.

3일 간 증인으로 법정에 선 10명의 일반인 생존자들은 참혹한 당시 기억을 힘있게 증언했고 여전한 정신적 고통에 힘

들어들었다. 물이 차오르고 선체가 기울면서 냉장고 등이 한쪽으로 쏠리고 떨어지는 아수라장 같은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검찰이 증인 신문 도중 제시하는 동영상과 사진도 참혹했던 현장을 기억나게 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스러움을 갖고 있는 생존자들의 고통도 드러났다. 23일 증인으로 나선 김동수(49)씨는 증언석에 앉기 전 방청석의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참사 이후 학생들만 보면 구하지 못한 죄스러움으로 괴로워하고 목욕탕도 가지 못한다는 진술에는 법정이 숙연해졌다.

반면, 선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승객 구조를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도 증언을 통해 새삼 확인됐다.

증인들이 검찰의 “탈출 안내방송이 있었느냐”,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을 구조하거나 탈출을 도운 승무원들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 “보지 못했다”고 답변할 때마다 방청객들의 원망의 시선이 선원들에게 쏠리기도 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오는 28~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안산 단원과 생존 학생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전남경찰청장에 장흥 출신 백승호씨 내정

경찰청은 24일 전남지방경찰청장에 백승호(50·사진) 경기지방경찰청 1차장을 내정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번사체에 대한 조동 조치를 허술하게 한 책임을 물어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임 백 청장은 장흥 출신으로, 금고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고시(33회)

에 합격한 뒤 지난 1994년 경정으로 특채돼 강진서장·강원청 차장·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말 치안감인 경기청 1차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가 이번 인사로 전남지방청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한의사 법원 “죄질 나쁘다” 징역형 진료기록 조작...면허취소 형 선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했다가 적발된 한의사가 재판에 넘겨져 면허가 취소될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애초 벌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24일 지인들이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요양·의료급여를 청구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수법, 횡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한 뒤 “해당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인 기초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씨의 한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1일께 전남지역 자신의 한의원에서 254명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1년 4월 20일까지 공단에서 4500만원, 자치단체에서 1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휴대전화 슬쩍한 여대생 뒤늦게 후회

○~버스터미널 내 은행 현금인출기에 있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20대 여대생이 절도 혐의로 경찰서행.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여대생 강모(21)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에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 버스터미널 내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여대생 박모(20)씨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갔다는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알고 있다”는 터미널 내 상가 종업원으로부터 용의자를 특정할 뒤 검거했는데,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다, 피해품은 돌려줬고 피해자와 합의도 끝냈다”면서 선처를 호소.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앞
무등 장례식장이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인직접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중!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나주 영강초교 앞 2층 상가

대지 205평 주택 1층 100평(전용 70평)
주택 2층 80평(전용 60평)

매가 1억9천
월 보증금 2천 월 150만원

참신한 010-6670-9800 062)952-5584

신축원룸매매 용봉지구

전대 상대 5분 르까프 매장 뒷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전방층용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엘레베이터 완비, 정남향,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11억8천 (보2억 용3억)
월수익 900만 (1년수익 1억1천)

010-6832-9700 062)512-8080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분 2분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 ▶신축 4층 원룸 매대 룸12개(1층상가, 룸 18개) 월수 800 매가 8억
- ▶신축 4층 원룸 매대 룸18개(4층 고급주택) 월수 800 매가 12억
- ▶전대 예술대 룸 10개 매가 4억 2천
- ▶원룸(3억~20억)더량 있습니다.

참신한 010-6670-9800 062)952-5584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 ①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술빌딩(4층중 3층) 85평(신한은행 뒤,모아엘기A 상가앞) 매가3억5천(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②수원지구 상가 매대 3층(엘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시 하남 공단 쪽)매가 2억5천(보2천 월 150 용9천)
- ③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성오션스파) (6층중 2층) 62평(부영APT)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 ④나주시 상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 ⑤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 ①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천역 1분 출구 2분(올수리 전체세종 신규교체 임대료로,주인거주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②12평 매가3천5백(보200 월30 용1천)
- ②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 30평 매가 1억5천(월1천) → 1억5천(용 6천가능)
- ③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대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월1천)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사비없음)
- ④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대(6층)
①15평(수월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대매가 8천
②10평(수월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대가 5천만원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 옆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주)수아 010-6832-9700 062)512-8080